

# 유럽에서 한국문화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 독일 현지에서 본 '주빈국 한국' 한국에 대한 현지의 무지 깨는 계기 돼야

김영자\_ 레겐스부르크대학교 교수

금년 3월 독일 라이프치히도서전에서 한국의 문학 잔치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시인, 소설가 30여 명이 전 독일 방방곡곡을 방문하고 있다. 수행인원도 적지 않다. 통역자, 진행자, 토론자들 모두 쟁쟁한 독일 언론과 방송국의 일원들이다. 이리저리 청탁해서 어렵사리 행사 지역의 교민과 소위 '친한파'라고 할 수 있는 교민의 지인들이 옹기종기 모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한 행사에 20~100여 명까지 참석 한다고 한다. 또 9월부터는 독일 4개 대도시, 최남부 독일 뮌헨, 중서부 독일 슈투트가르트, 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내버스가 'Korea' 명찰을 달고 달리고 있다. 행사 본거지인 프랑크푸르트 전차들도 말끔하게 'korea' 한복을 입고 달린다.

### '주빈국 한국'을 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 모두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좀더 안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한국문화 사절'이라고 자처하는 재독 교민들로서는 2005년은 어깨에 힘이 들어갈 법도 한 해이지만 정작 교민들이 낯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한국문학행사에 지인들을 불러 모으는 데 동원되는 게 고작이다. 현지 발행 한글신문이 지난해에는 소외된 재독 교민의 향의를 신더니 이젠 포기한 듯 잠잠하다. 올해 주빈국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교민도 수두룩한데 현지인들은 오죽 하랴! 필자가 활동하는 대학 내 주위를 점검해 보았다. "그래, 몰랐는데... 축하해요"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독일에서만만 아니다. 여름휴가나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방문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찾는 지식층 일부를 만났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한국이 주빈국으로 온갖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뜻밖에도 아예 모르고 있거나, 그저 어렴풋이 들어본 정도가 대부분일 때가 많아 당황함을 감추기 어려웠다.

필자는 1960년도 말에 독일 뮌헨에서 유학생생활을 시작했다. 학위 후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말과 문화를 20여 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독일을 '한국문화 미개발지'라고 자주 표현한다.

독일은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주위의 '친한파'가 한국에 관한 책을 읽고 싶다고 말하면 "이런 책이 좋아요" 하며 권할 책이 없어 해줄 말도 없었다. 1996년에 독일 주정부지원금으로 독어권용 기초한국어 교재를 준비한 적이 있다. 독일의 외국어 교재 출판사 다섯 곳에 문의를 한 결과는 참담했다. 할 수 없이 한국의 한림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다. 독일 현지로 전화주문에 따라 한 권 한 권 우송해야 했으니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 독일은 '한국문화 미개발지'...우리 문화 알리는 데 적극 나서야

지금도 한국도서를 출판하겠다는 현지 출판사는 별로 없다. 그나마 원고 내용에 긍정적인 출판사도 가장 먼저 출판지원금 협조를 앞세우니 맥이 풀린다. 한국정부의 10여 년 간 지원금으로 출판된 문학적 등을 독일서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서건 대형출판사 상품이 우선이란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현지인의 관심을 끌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어 교재가 있는 진열장에 알파벳순서로 China, Japan, 다음 Korea를 찾아봐야 헛 일이다. 6개월에 고작 한 명이 찾는 책을 왜 갖다놓겠는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초대되자 한국은 주빈국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국의 책 100'을 선정했지만, 손님 입맛을 고려하지 않고 주인의 입맛에 기준한 상차림에 손님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이상 한국문학 번역에만 치중한 한국문화정책의 허점이 여기에 있다. 밀거름으로 한국문화가 다져지지 않은 유럽에 사치스런



문학으로 성급하게 객을 맞으려 했으니 말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 까지도 한국이 역사상 중국이나 일본의 속국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간 안타까운 것이 아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랐지만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100년 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삼성, 현대, LG의 광고가 독일 광고판을 장식하지만 독일인은 이들 기업이 한국의 기업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한국정부 및 한국인 스스로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다. 스스로 알려려 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알아주기만을 바라고 있던 것이다. 전 세계 국민에게 한국문화의 우수한 특수성과 고유한 문화를 알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현지인이 읽을 수 있는 현지어 도서출판이다. 우리가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 한국 알리기는 도서전이 끝나도 계속되어야 한다

조금 장황하게 독일에서의 한국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적었지만, 그래서 더 주빈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개인적으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결석을 한 적이 별로 없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에 없지만 1980년 후반기에 도서전 회지에서 우연히 한국전시관 장소변호가 나와 있기에 너무 반가워 어렵게 찾았다. 하지만 전시관 자리에는 짐 챙겨 비워놓은 빈방만큼 쓸렁한 빈 부스만 있었다. 그 전시장은 주로 개발도상국의 출판사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혹시나 해서 “한국관이 여기가 맞느냐”고 물으면 어깨만 치켜 올려 모른다는 대답만 들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주빈국이 돼 한국의 문화를 한껏 뽐낼 기회를 잡은 것이다. 독일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모국의 문화를 가슴 활짝 펴고 자랑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방대한 작업에 밤샘도 마다하지 않는 조직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큰 만큼 바람도 크다. 무엇보다 독일에서의 문화 홍보가 한국과 한국인을 잘 알고 있는 독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어제를 벗어나, 일반 독일 지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하여 주빈국 행사가 일회적인 이벤트로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그리고 더 구체적인 한국문화 장려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내년에도 있고, 라이프치히도서전도 해마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소비한 국가세금이 바닷물에 조약돌 던지는 격으로 끝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현지 한국학 전문가들의 노파심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국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삼성 휴대폰, TV대형모니터, LG, 현대의 상품광고 또한 심심치 않게 화면에 등장해 우리 재독교민의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한 독일 정치인은 “우리 가정에 생산지를 모르는, 한국의 제품이 하나쯤은 다 있다”라고 할 만큼 한국의 상품은 독일 어느 가정에도 함께 하고 있다. 내년 독일 월드컵에 한국이 본선에 진출했다는 자막을 볼 때면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을 계기로 삼성, 현대, LG가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한국의 기업이라는 사실이, 한국인의 정신이 한국축구를 아시아의 최강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김영자**

사진 |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 · 프랑크푸르트 = 신동섭 기자

● **이 글을 쓴 김영자**는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에서 한국어문화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독어권용 기초한국어》(2005), 《독어 한자사전》(2002), 《독어판 삼국유사》(2005), 《독어판 한국의 문화유산》(2000), 《독어판 한국의 음식문화》(1989) 등을 독일어로 현지에서 펴냈고, 국내에서는 《서양 사람이 본 서울 500년》 《100년 전 조선왕국 이야기》 《수도사와 금강산》 등이 출간되었다.